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사무엘하 12:1-1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신실하게 진실하게(은혜의 찬양 74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2 나의 죄를 씻기는(찬송가 252장)

- 1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 2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 3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 4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 5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 읽기 사무엘하 12:1-12

-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 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 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 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양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 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본문 배경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밋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세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에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여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싸우다 죽게 만들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 그럴듯한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을 절대 들키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음을 알려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화를 들어 다윗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했고,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사했고, 밋세바는 미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죄는 점점 우리의 몸을 잠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로 인해 밋세바의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비유는 무엇인가요?(1-4절)

답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부자가 빼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비유를 통해 접근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많은 양과 소를 두고도,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비유는 다윗이 밋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을 정확히 비추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때로는 말씀과 상황,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2 나단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7절)

답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말하며 다윗이 죄를 지은 당사자임을 밝힙니다.

해설 다윗은 비유를 들으며 그 부자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지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목적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적용

1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거나 변명했던 적이 있나요?

2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7-4 여호와와 얼굴은

시편 34편 16절

♩ = 73

작곡 이종윤

E B/D# A/C# G#m/B A E/G# F#m7 B

여호와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 하사— 그 들의 자취를

5 A/C# B/D# E E/G# F#m7 E/G# A B E

땅 에 서 끊으 려 하시는도다— 시편— 삼 십 사 편 신 육 절 말씀아멘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깨달은 뒤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겸손히 엎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